

AI로 '인텔리전트 팩토리'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도모

ITS 기업 상반기 결산

4 포스코DX

올해 상반기 포스코DX는 산업 현장을 넘어 사회와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의 경계를 넓히며 영향력을 확대했다. 산업용 AI(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영상 인식 AI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이어가며, 단순한 디지털 전환(DX)이 아닌 '지속 가능한 DX'를 구현해냈다.

◆ 산업 현장을 디지털로 재현... '피지컬 AI' 확산 가속

포스코DX는 AI와 로봇 자동화 분야에서 인에이블러(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IT와 OT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대상 사업 진단, 컨설팅, 제안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고객가치 혁신추진TF'를 신설했다.

또 전략적인 경영혁신을 총괄하는 '경영혁신추진단'을 새롭게 만들어 AI 기반의 업무 혁신을 실현하고, 내부 조직·제도 혁신, M&A 추진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포스코DX가 내세운 핵심 과제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확산이다. 인텔리전트 팩토리는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



심민석 포스코DX 사장이 지난 1월22일 판교 사옥에서 열린 창립 15주년 축하 기념식에서 발표하고 있다. /포스코DX

AI·로봇 자동화 조력자 역할 강화
피지컬 AI 기술로 생산효율 극대
산업현장서 축적한 AI 기술 역량
AI 로드킬 예방 시스템에 활용
해양생물 모니터링 시스템 통해
생물 다양성·보전·관리 지원

하고 자율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용 AI, 로봇, 디지털 트윈 등 첨단 DX 기술을 결합해 만든 공장 시스템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현재 빅데이

터와 AI 기반의 조업이 이뤄질 수 있는 제철소, 이차전지소재 공장을 대상으로 인텔리전트 팩토리가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DX가 주력하고 있는 '피지컬(물리적) AI' 기술은 산업계에서 크게 주목받는 분야다. 포스코DX는 작업자가 제품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크레인을 수동 조작해 옮기는 과정에 AI를 접목한 'AI 기반 무인 크레인'을 개발했다. 제품이 비스듬히 놓여 있거나, 층층이 적재돼 놓려있거나, 불규칙하게 적재된 경우 크레인의 후크를 어디에

걸어야 할지 등을 AI가 스스로 판단해 제품을 들어 올리고 나른다.

포스코DX는 포스코스틸리온 포항 도금공장에 피지컬 AI를 적용해 크레인을 무인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트레일러로 운반돼온 코일 제품을 크레인으로 하차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AI 모델을 올 상반기 개발하고, 이를 아이작 심(가상 환경에서 실제 센서와 시스템 등이 물리적 환경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해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으로 가상화해 이르면 내달 가상 시운전을 실시한 후 내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포스코DX는 AI·IT·OT 기술을 토대로 한 '제조 설비의 자율 물리 시스템화'를 목표로 '피지컬 AI' 기술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상환경 시뮬레이션과 현장 테스트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AI 모델과 제어 시스템 기능을 강화해 인텔리전트 팩토리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SG 기술로 로드킬·해양생물 보호 나서

ESG 경영 역시 포스코DX가 내건 주요 키워드다. 포스코DX는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AI 역량을 사회 공헌 분야

로 확장하며, 기술의 가치를 새롭게 증명해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AI 로드킬 예방 시스템'이다. 포스코DX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주요 도로 구간에 스마트 CCTV와 라이다 센서를 설치했다. AI가 실시간으로 야생동물의 도로 출현 여부를 감지해 LED 전광판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양평 국도 6호선, 오대산 국립공원 등에 적용돼 있다.

해양생물 보호에도 포스코DX의 기술이 사용된다. 국립공원공단과 개발한 '해양생물 모니터링 시스템'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 사천 인근에 구축됐다. 스마트 CCTV와 비전 AI 기술로 육지 서식 계류나 토종 고래 상행이 등 해양보호종의 출현을 탐지하고 개체 수, 이동 경로, 출몰 패턴 등을 분석해 축적한 데이터를 생물 다양성 보전과 관리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포스코DX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겨냥하며, 지속 가능한 DX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금년 하반기 포스코DX는 산업용 AI·로봇 고도화와 ESG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빅테크기업, 디지털 규제 대응 분주한데... '韓만 그대로'

DSA·DMA 영향력 현실화 애플,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규제공백에 빅테크 '韓 패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강도 높은 디지털 규제에 줄줄이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SNS 알고리즘 투명화부터 콘텐츠 책임 강화, 앱마켓 수수료 인하까지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의 영향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대부분 'EU 한정판'이다. 같은 플랫폼을 쓰는 한국 사용자들은 여전히 투명성 없는 알고리즘, 30% 수수료, 자율규제라는 이름의 무책임 속에 방치되고 있다.

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E



애플은 지난날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따른 추가과징금 경고에 앱스토어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개편한 새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 /PIXABAY 무료 이미지

U의 디지털 규제가 이제는 단순한 내부 정책을 넘어 글로벌 통상 갈등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

프 전 미국 대통령은 DSA와 DMA를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실상의 과세'로 규정하며 무역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 초안에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 면제' 가능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반면, EU 집행위는 "DSA와 DMA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책 자주권을 강조했다. 다만,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일부 조정을 수용하지는 내부 논의도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애플은 지난달 27일, EU 집행위원회가 DMA 위반에 따른 추가과징금을 경고하자 앱스토어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 새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 개발자에게 최대 30%까지 부과하던 수수료는 15%로 낮아졌고, 앱

내 외부 결제 유도도 허용됐다. 이는 최대 5억유로(약 793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빅테크의 수익 모델조차 바꿀 수 있는 DMA의 실질적 위력을 보여준다.

빅테크 규제 흐름은 주요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6월, SNS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EU의 DSA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규제를 입법까지 마친 한국에선 여전히 30% 수수료가 유지되고 있어, 빅테크의 '한국 패싱'과 정부의 규제 공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애플

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빅테크 규제의 선봉에 섰다.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과징금은 아직 집행되지 못한 상태다. 최종 확정을 위해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전 위원장의 탄핵 이후 현재 이진숙 위원장 단독 체제로 운영되며 정족수(2인 이상) 부족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면서 빅테크 제재도 함께 표류하고 있다.

IT기업 관계자는 "빅테크들이 유럽에선 수수료를 낮추고 알고리즘을 공개하면서도, 한국에선 법의 허점을 피해 기존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은 각종 규제를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글로벌 기업과 같은 경쟁 환경에 놓여 있어 사실상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LG U+, 오프라인 채널로 中소 판로 지원

중소벤처기업유동원과 '맞춤' 중소기업 제품 판매공간 마련

LG유플러스가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과 복합문화공간인 '일상비일상의 틈byU+(일상비일상의 틈)'에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공간을 마련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 공간은 서울 강남역에 있는 '일상비일상의 틈'과 부산 서면 '일상의 틈' 매장이었다. 일상비일상의 틈 3층에 위치한 전시공간에는 총 59

개의 중소기업이 만든 휴대폰 액세서리, 리빙 아이템, 뷰티 아이템 등이 전시되며 부산 서면 일상의틈에서는 4개 기업의 제품이 전시된다.

LG유플러스는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제품 체험 데이터도 분석해 중소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LG유플러스가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제품 개발 및 연구, 마케팅 방향성 설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판매 성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매장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품 판매는 디지털커머스 'U+콕'이



LG유플러스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과 복합문화공간인 '일상비일상의 틈byU+(일상비일상의 틈)'에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공간을 마련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

지원한다. 기업에 부과되는 판매 수수료를 인하여 유통 부담을 줄였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프렌즈, '오징어게임 3' 브랜드 협업

온라인 방탈출 게임 공개

카카오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와 협업해 만든 카카오프렌즈 IP(지식재산권) 기반 참여형 콘텐츠와 굿즈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춘식이 게임 The Final Game'은 지난해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브랜드 협업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오픈채팅, # (샵) 검색, 선물하기 등 다양한 기능·서비스와 프렌즈 IP를 결합해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세계관을 카카오톡 안에서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날 카카오는 오픈채팅 기능을 활용한 온라인 방탈출 게임 '춘식이 게임 The Final Game'도 공개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숨바꼭질' 에피소드를 모티브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참여코드를 기반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탭 상단에 노출된 '춘식이 게임' 키워드를 누르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 목록이 열린다. 각 방 커버 이미지에 제시된 퀴즈의 정답을 참여코드로 입력하면 다음 방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무지개 문이 그려진 방에 도달하면 최종 미션을 완료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